

[하이록코리아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보고서]

■ 일반사항

| | |
|----|-------------------------------------|
|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일시 | 2017. 03. 24 (금) 오전 10시 |
| 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7로 97(송정동) 본사 1층 회의실 |

■ 상정 의안

| No. | 의안 | |
|-----|---|----------------------|
| 제1호 | 제39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배당예정금액 : 주당 현금 400원 | |
| 제2호 | 감사 선임의 건 | 상근감사 강진구 선임의 건 (재선임) |
| 제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제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주목해야 할 의안 분석

[제2호 의안 상근감사 강진구 선임의 건(재선임)]

· 의안 내용

| 성명 | 생년월일 | 주된직업 | 약력 |
|-----|------------|-------------------|---------------|
| 강진구 | 1938.01.23 | 現) 하이록코리아(주) 상근감사 | 농협 구서동 지점장 역임 |

· 의안 분석

이사회가 추천한 상근감사 후보자 강진구는 현재 하이록코리아에서 상근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을 위해 후보로 상정되었음.

그런데 강진구 후보자는 200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이록코리아의 상근감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 까지 재선임되면서 약 14년 이상 감사로 재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강진구 후보자의 주된 약력은 농협중앙회 지점장인데 하이록코리아의 설립자이자 현재 하이록코리아의 회장인 문영훈 회장은 농협중앙회에서 1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음. 아울러 현 하이록코리아의 박재춘 사외이사 역시 농협중앙회 지점장을 역임한 인물임.

이러한 강진구 후보자의 재직기간 및 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강진구 후보자가 감사로서 제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기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조건으로 판단됨.

아울러 문영훈 회장의 뒤를 이어 하이록코리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문휴건 대표이사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록코리아의 관계회사 하이록단조는 최근 하이록코리아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하이록코리아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음. 하이록단조는 2014년 11월부터 수차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로부터 하이록코리아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음.

[하이록단조의 하이록코리아 지분 매입 내역]

| 주식 매수일 | 거래 상대방 | 매입 내역 | | | 차입금 (천원) | 차입처 |
|-----------|-----------|---------|--------|-----------|-------------|--------|
| | | 주식수(주) | 단가(원) | 총매입액(천원) | | |
| '14.11.25 | 협동정공 | 130,000 | 30,500 | 3,965,000 | 4,000,000 | 하이록코리아 |
| '15.04.30 | 김윤희 | 50,000 | 34,000 | 1,700,000 | 1,700,000 | 하이록코리아 |
| '16.03.22 | 문영훈 | 40,000 | 28,600 | 1,144,000 | 9,435,171 | 하이록코리아 |
| '17.02.02 | 문휴원 | 410,454 | 20,200 | 8,291,171 | | |

※ 협동정공은 하이록코리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기업이며, 김윤희, 문영훈, 문휴원 등은 하이록코리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임

문휴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이록단조는 하이록코리아로부터 150억원 이상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자들로부터 하이록코리아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하이록단조는 하이록코리아 지분 4.63%를 보유한 3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였음. 이는 결과적으로 문휴건 대표이사가 하이록코리아의 자금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주주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됨.

이에 하이록코리아 이사회는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진구 상근감사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